

70일 남은 수능

“모평, 성적분석 중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작년비 5만명 감소
성적 상승·하락에 따라 전략 필요
상승시 정시 수능전형 목표로
하락시 수시전형 최저기준 목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가 4일 일제히 치러진다. /연합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출제기관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4일 일제히 치러진다. 이후 이틀 뒤인 6일부터 대학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학원 등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9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54만9224명으로, 재학생은 45만9217명, 졸업생 등은 9만7명이다. 작년 9월 모평 대비 지원자가 5만1556명 감소한 가운데, 재학생은 5만52219명 감소, 졸업생 등은 3663명 증가했다.

이번 모평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 준비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실제 수능과 동일해 수능 준비도 진단과 보충, 문항 난이도 수준 등을 가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9월 모평 성적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이후인 10월 1일 수험생에게 통보되므로, 기재점을 통해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수능 성적 위주 정시

모집 지원대학 선별에 활용해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난 6월 모평과 이번 모평 성적 추이에 따라 수시지원과 정시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9월 모평 성적만으로 수능 성적을 예측하기보다는 6월과 9월 모평 성적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6월 모평보다 성적이 상승했다면 정시 수능전형을 최종 목표로 사모,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전형에 소신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9월 모평 성적이 하락한 경우는 수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선부터 위아래로 범위를 넓혀 지원해는게 좋다. 또 서류 100% 전형이나 수능 이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 중 정시에서 합격이 쉽지 않은 대학이라면 수시에 적극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용수 기자 hys@

대학가 소식



이남식 서울예술대 신임 총장이 2일 취임식에서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 취임 “교육의 질 높이고 환경조성”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신임 총장은 지난 7월 대학 장학 이래 처음으로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총장 초빙 공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됐다.

이 총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산업공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디자인 대학원 대학

(IDAS) 부총장, 전주대 총장(제9,10,11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서울예술대 장학 이념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과학기술대 등 4개대 공동 ‘융합기초프로젝트’ 성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혁신사업추진단이 최근 서울과학기술대·성균관대·한성대·서울여대 공동 ‘융합기초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융합기초프로젝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팀으로 만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 학습이다.

이번 여름학기 중 6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4개 대학교가 연합해 총 66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지난달 19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최종 성과발표회에서 7명의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독창성, 융합적 사고의 적용성 등의 기준으로 12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대상 200만원 등 상금을 수여했다.

/한용수 기자

대국민 간담회 이어 검찰수사 대응 나서

조국, 변호인단 최대 10명 구성

조 후보자 직접 변호인단 선임 나서
6~10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 전망
檢 “피의자 소환 추석 전후 될 것”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모씨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인 이인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와 관련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직접 움직인 것은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자신과 연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6~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소명에 나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기 위해 몇 명의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던 되지 않던 간에 검찰의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5천만 원 투자약정 논란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면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의혹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

이다.

조 후보자가 물밑에서 변호인단을 물색하는 데는 국회 청문회 무산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2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 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의혹 관련 주변인물 소환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2부로 수사 주체를 바꾼 데 이어 특수3부 인력도 추가 투입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연일 커지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정에 검사들을 추가로 보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3일 조 후보자 아내인 정모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오전 경상북도 영주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한영외고 학부모 스펙 품앗이 등 각종 입시 의혹과 정씨가 직접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30여곳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로 의미를 갖는 주요 피의자들의 소환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추석 전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전문대교협 입학정보박람회

2022학년도 입시전형 간단해진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 진학상담
현장서 원서 접수시 전형료 면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고3 수험생 등을 위해 오는 6~8월 3일간 서울 양재아트센터에서 2022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91개 전문대학이 참가하며, 박람회 기간 동안 수험생의 진로에 맞는 진학을 위해 현장 진학지도 교사 및 대학의 입학처 관계자들이 1:1 진학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고, 일부 대학은 박람회 기간 현장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전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전문대 수시 전형의 특징은 간소화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입시 전형 수가 간소화된다”며 “또 4년제 대학졸업자의 ‘U턴입학’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입학전형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지난달 30일 전문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심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문대교협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응시자가 선택가능한 전형 수를 57개로 제시했다. 이는 2021학년도 기본사항 제시 107개 대비 50개(46.7%)를 축소하는 것이다.

학생 선발 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인 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 모집시기 및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유형을 선택하고,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은 2개 이내로 선택해 결합하는 식이다.

앞서 전문대교협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정원 내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 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기회 ▲대학 자체 등 7가지로 정했다. /손현경 기자

삼육대학교

‘얼리버드 에듀’ 개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삼육대는 교육혁신단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얼리버드 에듀케이션’(이하 얼리버드 에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얼리버드 에듀는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일찍 일어나는 새’(얼리버드·early bird)라는 뜻의 프로그램명처럼, 부지런하고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도입 첫해인 올해에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테아트룸 수(Theatrum SU秀)’를 개설해 운영한다. 연극작품을 선정해 그 배경이 되는 인문학 강좌를 듣고, 직접 연출과 연기를 하는 과정이다. 학습은 물론 공연기획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자기주도 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연극 ‘인류 최초의 키스’를 배우며 기초 인문학 소양을 길렀다.

/한용수 기자